

## 2008년 교육, 우리 모두가 함께 앓는 동병상련

6학년인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하는 말,

“선생님이 국제중학교 시험 치를 사람 있는지 손들어 보라고 하셨어.”

당장 6학년이니 시험 얘기도 오고 가는구나.

“엄마, 나도 시험 한번 볼까?”

참~ 학교에서 별짓 다한다. 콧방귀를 끼는 찰나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한다.

“하긴, 불어도 우리 집은 돈 없어서 못 갈거야.”

국제중 뉴스를 보면서 열을 내다가 마지막에 자조적인 푸념을 들은 아들 녀석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그래? 아이구... 걱정마라. 절대로 시험에 붙을 일이 없단다.”

중학교 입학할 앞둔 아들을 가진 한 회원이 서울에 국제중 설립이 된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나눈 대화라고 한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서울국제중이 시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11월 중순부터는 서울 2곳의 국제중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이 소식에 한숨짓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일은 올해 일어난 일 중 아주 소소한 일일 뿐이다.

하반기에는 10여년 전에 폐기된 연합고사가 다시 부활되었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강압과 협박으로 일제고사를 강행했다. 일제고사는 교육목적이나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훼손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이번 시험으로



인해 소풍이나 백일장 등 그나마 전인적 교육활동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여기에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되면, 학생 간-학교 간 성적위주의 무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될 것이다.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지필중심으로 획일화된 수업은 강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같은 기획이 우연히 돌출된 것이 아니라 한국 기득권세력의 초중등 개혁 프로그램 중 일부이기 때문이

다. 초중등 교육에서 ‘평준화와 공공성’을 지우고 시장화 자율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기획이다. 일제고사로 서열을 매기고, 자유경쟁의 조건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 415학교자율화 조치, 학교를 서열화하는 학교정보공개법 시행, 역사교과서 개악 시도 등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만능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이 움직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각자 사교육비 확보, 아이 학원 보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폭증한 사교육비가 그것을 반증한다. 사회 전체가 아이를 시험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젠, ‘우리 모두가 함께 앓고 있는 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동병상련의 정으로 함께 고민하며 토론을 시작하자. 곧 갈피가 잡히고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은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87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은 우리회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 치뤄질 우리회 16대 회장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건설될 것이다. 교육복지실현 운동을 확대 강화하고 우리의 목표인 ‘교육격차 해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노력을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힘은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에게서 나온다. 2008년의 절망을 딛고, 2009년에는 다시 한번 더 희망을 노래하자!

###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10.30 [연대기자회견문] 상지대 등 4개 대학교의 정이사 체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

11.05 [연대보도자료] 환경연합의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며, 우리도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11.05 [연대기자회견문]국제중 헌법소원 심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

분 신청을 하며

11.10 [논평]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11.17 [연대기자회견문]검찰은 영훈과 대원학원의 횡령의혹을 수사하여 형사 처벌하라!!  
[보도자료]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 요청 보도 협조 안내  
[성명서]대교협은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있는 고려대 수시전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발표하라

### 이달의 주요기사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바람직한 청소년 인성지도

05 정책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 토론회 지상중계

08 특집  
사진으로 보는 2008년 교육현장 worst 8

10 사람향기 바람따라  
조명숙 5대 부회장

12 지부지회 소모임  
성남지회 \_ 어린이 체험 학습단

14 상담실Q&A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전학가라고...

## 투표하실거죠?

### 2008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선거 일시 전자투표 2008년 12월 17일(수) 0시~19일(금) 18:00(본부 홈페이지)

우편투표 2008년 12월 19일(금) 18:00 까지 도착분

선거 대상 회장, 수석부회장

드디어 2008년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16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우리 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선거는 회원들에게 권리를 갖게 하며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우리 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선거는 민주 단체로서 우리 회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회원으로서 시민운동의 시작은 우리 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인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개혁운동의 지도자를 나의 한 표로 직접 선출하는 것부터입니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회원의 권리인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1회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18회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19회 한글날 특집  
20회 지자체의 학교지원

21회 바람직한 청소년 인생지도

# 그린카드(생활지도카드)를 통한 생활지도

학교의 부서 중에 학생부 혹은 생활지도 부는 비인기 부서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요즘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얘기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이 생긴지도 몇 년이 되었다.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에 의해 제재나 체벌 중심의 생활지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지도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그린카드(생활지도카드)를 통한 생활지도이다.

그린카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모범학생을 칭찬하고, 칭찬 받은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태도를 본 받도록 지도하며, 기본예절, 기초질서, 교칙 등의 규범을 잘 지키는 생활태도가 습관화되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린카드는 기본생활 규칙을 잘 준수하거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등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점을 교사가 찾아내어 칭찬카드를 발급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긍정적 마인드가 정립될 수 있다



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린카드제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학생을 발견, 또는 알았을 때 교사는 선행사실을 칭찬하고, 그린카드(생활지도카드)를 제시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학생용은 학생 본인에게 교사용은 당일 생활지도 카드함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그린카드(생활지도카드)를 받

은 학생은 당일 종례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학급학생들 앞에서 선행한 사실을 칭찬하고, 교무수첩(행동발달누가기록표)에 기록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학기별 1회에 걸쳐 칭찬카드를 많이 받은 학생을 조사하여 그린카드상을 시상한다.

그린카드제는 학생들도 종전의 훈계나 체벌의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방

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종전의 체벌로 인한 감정적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생활지도로 인식하고 태도개선 및 선도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린카드제를 통하여 칭찬과 사랑이 넘치는 풍토가 조성되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며, 모든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또한 칭찬을 통한 인성 교육이 학교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칭찬을 받은 학생은 자신감과 성취의욕이 강화되어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학습활동에도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정철모(중등 교사)

그린카드(교사용/학부원)			그린카드(학생/담임교사제출용)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신행일자	2008년	월 일	신행일자	2008년	월 일
신행내용			신행내용		
학생확인			학생확인		
지도교사		(인)	지도교사		(인)

## 체벌하는 교사보다 고민하는 교사로서 살아가기

### 1. 교사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허탈함

학교에서 가르칠 때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제 학생 지도이다. 교과서도 안 가져오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있다. 또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웠는데, 눈을 부릅뜨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용의 복장 문제로 지리한 말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예컨대 수업 중 계속 떠들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고, 청소 시간에 도망가서 다시 청소를 시켰는데도, 다시 귀가해 버리는 학생도 있다. 또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도 있다.

이런 경우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벌을 주기거나 부모를 소환하고, 생활지도부에 의뢰하여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생활지도가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학생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다보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 허탈할 때가 있다.

### 2. 체벌의 유혹과 학교 폭력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데 체벌을 쓰면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체벌을 하지 않은 교사보다도 엄하고 간간히 체벌을 가하는 교사에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교단에서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교사로서 체벌 유혹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교육 현장에서 체벌에 대한 명분 마련하기도 어렵지 않다. 문제 학생들부터가 길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 한 두 대 간단히 때리고 끝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지도 받아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교육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부각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이런 속설에 교사로서 책임감을 연결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업 장악도 못하고 학급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히기보다 체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

명한 교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3. 체벌은 교육을 가장한 폭력

하지만 체벌은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체벌의 효과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지도가 아니다. 마음 속에 더 큰 분노와 불신을 일으키며, 나중에 더 강한 일탈 행동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지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체벌을 가하면서까지 가르쳐야 할 것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나 자아존중감의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을 두둔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학생의 경우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문제 행동도 학생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을 탓하기 전에 먼저 교사나 부모 및 사회가 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교사도 손쉬운 교육 방법보다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체벌하는 교사보다는 고민하는 교사로서 살아가기

물론 체벌을 기꺼이 선택하는 교사는 한 사람도 없다. 설령 체벌을 하더라도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체벌하는 교사를 두둔하고 싶지 않다. 어떠한 체벌이든 그것은 교사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를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체벌하는 교사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교사가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외적 평가를 의식하여 쉽고 편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학생과 교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사가 되려고 한다.

김학윤(잠신고 교사)

# 체벌 없이 가르치기

체벌은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면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지시하고 따르라고 하고 위계와 권위에 의한 가르침이 될 때 체벌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이고 교사의 역할은 이 배우의 과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다.

흔히 교사가 저지르는 잘못된 교사의 권위를 내세운 체벌로 아이들을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체벌은 규율의 강화, 본보기로 신체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집단을 손쉽게 제어 통제하는 폭력적 수단이 지 결코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체벌

은 교사의 감정풀이 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지금의 교육환경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 체벌 없이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힘들 때 마다 체벌의 상처와 아픈 기억, 체벌 없는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결심했다고 말해주는 옛 제자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소소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그 하나는 교실이나 주변에 체벌 도구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누구나 무엇인가 화풀이 할 도구를 찾게 된다. 나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으면 결국 포기하게 되고 없앤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화가 가라앉게 된다.

감정이 자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노래 부르기 등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감정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만들면 더욱 좋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소소한 방법과 함께 아이들을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즉,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인 애니어그램이나 MBTI, 상담 심리, 대화법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대화법, 설득법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공부들은 ‘도대체 저 아이는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등 이해 못할 아이나 상황을 ‘그럴 수도 있겠다’로 바꾸어 주었다. 또 교사인 내가 어

떤 성격이며 기질이고 어떤 상황에 화가 나는지에 대해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변화시키려 해도 어려웠던 아이들을 학부모를 만나고 설득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놀랍게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교사인 나는 아마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단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는 아이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길을 알고 찾아 간다. 교사의 과육이 길을 잃게 만든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귀하다. 교사인 내가 할 일은 그런 아이들을 응원하고 기대 하되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오늘도 아이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즐거운 존재로 나에게 다가온다.

정애순(서울 도봉초 교사)

## 체벌의 탈을 쓴 폭행

매서운 바람이 몸을 휘감아 추워지는 이 계절에 가슴마저 시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나의 꽃이 너무도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10월 21일, 나의 희망이자 꿈인 내 아이가 학교에서 그것도 담임에 의해 폭행을 당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밝고 어른스러워서 안심하고 키웠는데 그런 내 아이가 믿고 보낸 학교에서 그것도 학생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매질을 당해온 것입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맘이 아려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30대 가량의 매질을 당해야했는지, 시퍼렇다 못해 까매진 아이의 엉덩이를 보고 정말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 날 학교를 찾았습니다. 찾아오라더군요. 자신도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가 숙제로 내준 도형 문제를 틀려서 때렸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끝까지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는 안하더군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충분히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렇게 심한 매질을 했다니 그 학교 관계자 누구든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그저 사과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매질을 한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남자 아이는 2학년을 보내는 내내 거의 이러한 괴롭힘을 당

해왔더군요. 그 남자아이를 찾아내 담임 교사의 그간의 횡포를 알아내면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시로 아이에게 매질을 해왔고 발로 차고 먹살을 잡아 흔들고 교실 문밖으로 던져서 튕겨나간 아이를 다른 학부모가 보고 왜 아이를 그렇게 때리냐고 따지니깐 상관 말라고 했다더군요. 학교 관계자 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가시라고 했대네요. 그런 폭행을 가하고 2-3일 후 아이에게 또 아무렇지 않은 이유로 100대에 달하는 매질을 가했습니다. 한 교시 마다 20대씩 끊어서 80대를 때리고 남자아이들에게 화장실 가서 명들었는지 보고 오라고 하고 명들었다고 하니깐 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칭찬스티커 하나씩 주겠다고 하고, 같은 반의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하고 잘하면 칭찬스티커 하나씩 주고,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아무런 이유도 아닌 일로 10대 20대 이런 식의 매질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두 아이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심리적으로 상처가 심했고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퇴원해서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리고 약해서 보호해야할 아이들이 담임교사라는 이유로 반항도 못해보고 교실에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듬어야할 담임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고 울면서 애원하는데 그런 아이를 얼굴에 손톱자국이 나고 머리가 다 형클어지게 끌어가다 매질을 합니다. 그 충격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울면서 비는 아이를 보는 저희 심정은 실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너무 힘이 약해서 상대가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 선생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라서 내 아이들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버렸는데...그래서 발로 뛰고 이 악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실로 저흰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이 일을 아시고 같은 학부모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얼마 전 저희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한 TV방송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취재하는데 이러한 얘길 하더군요. 살인범인 유영철도 국가에서 보호하는데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보호해야한다...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누가 보호하죠?

어쩌다 뉴스 보면 교사의 과잉 체벌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요즘 들어 그러한 보도도 더 많아 진거 같더군요. 그만큼 교사의 체벌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갔단 뜻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러한 폭행들을 그들은 과잉체벌이라고 한다죠?

과잉체벌? 선생과 학생이었던 이유로 어

떻게 이러한 폭행이 체벌이란 이름으로 덮어질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제 상식론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을 떠나면 그냥 어른이 아이를 때린 겁니다. 이견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내 아이 일이 아니니깐 머대 수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도 제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내 일 아니면 일년 후 아니면 그 언제고 내 자식에게도, 아니면 내 손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쥐고 흔들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스승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단 교사의 탈을 쓴 교사라 불리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을 아이들을 위해 두 번 다시 교단에 서게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시험성적 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필수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성격파탄자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게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일을 접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이미지등을 고려해 무조건 어떻게든 덮을 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학교는 선생님들이 돈을 벌기위한 일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바른 지식과 착한 인성을 쌓고 밝게 뛰놀며 어른이 되기 전 추억을 쌓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그중의 일부이며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지요. 부디 저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연(학부모)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어디까지 왔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국회의원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교과위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의무교육에서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제도”라며 “특히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원수당 등 인건비 명목으로 70%~80%를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무교육기간에 세금 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헌법의 명문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일침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학교 교원의 제수당과 학교 회계직 급여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학교도 마땅히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100% 징수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안 발의는 민주당 안민석의원(9월23일)과 민노당 권영길의원(11월20일)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2005.6.13)과 민노당 최순영의원(2005.11.29)이 발의했던 법안은 여론화없이 묻혀 폐기 되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이미 전국의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하루 빨리 중학교 무상교육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학교운영지원비폐지운동본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정당별 간사와 위원 면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직도 미구성 되었고 계류 법안은 산적하여 2008년도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과반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

반환청구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 6월 19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전국 활동가 간담회

의 두 번째 심리를 마쳤고 2차 반환청구소송(100명)을 추가 제출했다. 현재 1차 반환청구소송은 소송액이 57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소액재판이 주류인 단독재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 국민 민생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묻히는 듯 하다. 지난 11월 12일 2차 심리에는 반환청구소송 피고에 해당하는 교육청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다. 또한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다른 사건과는 달리 기간의 텅을 길게 두면서 반환청구소송이 맥(?)없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은 반환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군사독재시절 반정부 민주화 투쟁으로 법정 재판이 있을때 그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잦은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듯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소송을 알려 내야 하겠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재판장에 참석하여 이 소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재판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요구하는 암묵적 압박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1차와 2차 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되면 반환청구금액이 증액되는 만큼 단독재판에서 합의부 재판으로 이관되어 좀 더 비중있게 재판이 다뤄지길 바라고 이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사법투쟁(?)으로 반환청구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의정부 스쿨뱅킹 강제출금 반환청구소송도 경기도교육청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입법화에 한 몫하고 있어서 법정 대응을 의정부운동본부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 당시(1989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30명)을 냈을 때에는 지금보다 모든 조건이 더 어려웠을 것은 쉽게 잠작하고도 남는다. 그 당시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

송은 비록 패소(92년 4월 22일)하였지만 이로 인한 공문화로 97년부터 육성회비는 전면 폐지 되었기에 보람있는 우리회의 활동역사가 되었다.

강원도 횡성과 홍천에서 여성농민회 회원들 주도로 반환청구소송과 납부거부운동, 교육청에 항의전화하기, 국회의원에게 입법화 요구등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을 2008년도에 활발히 했다. 그 결과 강원도 교육청은 2009년부터 면단위, 도서벽지 지원을 하고 2010년부터 지역을 확대한다고 한다. 실제 지역 학부모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2009년 지원 계획을 아직 파악 못하였지만 2008년 기준으로 볼때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경남교육청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 9월부터 전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확대를 발표했고 이미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육성회비도 1972년에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1997년에 전면 폐지하였다고 한다. 헌법에 위배된 제도 하나를 개선하는데 25년이나 걸렸다는게 믿기지 않을 뿐이지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작년부터 시작한 운동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폐지되어가고 있다.

##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정부부담 교육비보다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두배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회가 안민석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대전 교육청의 2007년도 결산 기준이며 중학교 이름 중 “ㄴ”, “스”, “ㅇ”으로 시작하는 학교의 교육비 내역이다. 다른 시도의 자료는 추후 발표하기로 하고 대전 지역을 먼저 본다면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두배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이지만 앞으로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줄 수 있도록 의무교육 완전무상실시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엔 꿈같은 이야기인 듯하다.

### <대전>

구분	정부 부담		학부모 부담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문화여중	188,647	231,711	208,487	552,962
용운중	194,026	178,004	152,743	473,172
오정중	187,368	163,852	71,610	234,660
용진중	187,420	236,752	178,002	500,409
신탄중앙중	217,800	274,249	220,052	593,296
송촌중	217,800	274,249	220,052	593,296
매봉중	189,950	215,326	248,179	595,861
유성중	201,803	156,641	115,599	335,290
대전서중	188,222	209,838	179,410	575,626
삼천중	200,299	166,380	435,927	1,015,855
어은중	185,353	99,767	194,370	558,494
월평중	196,386	124,520	210,227	541,548
문정중	214,966	380,172	374,418	883,794
송강중	201,729	250,128	193,821	530,939
만년중	215,408	178,565	247,156	603,403
문지중	191,337	135,457	186,390	526,107
외삼중	176,609	168,615	157,746	433,399
신계중	192,697	119,161	73,451	235,986
노은중	178,908	134,106	202,649	585,390
둔산중	187,836	260,371	263,934	657,790
계	3,726,728	3,697,493	4,134,223	11,027,277
		7,872,428		15,161,500



##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 토론회 지상중계

지난 11월 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는 교원평가안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시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이후, 2005년 참여 정부의 학교 교육력 제고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사회적 합의 내용을 토대로 4차에 걸쳐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승진과 연계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인 합의를 뒤집고 교원평가항목 중 동료 평가를 승진과 연계된 근평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표는 또 다시 교원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우리회는 한나라당의 ‘아이들을 잘가르치기 위한 노력보다는 0.1~2점의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을 부추기는 근평과 연계하는 교원평가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향으로 교원평가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교원평가에 대한 우리회의 핵심 주장은

1.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 평가도 중요 하지만 학생지도, 학급운영등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가 평가 항목과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교원평가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부적격 교사 문제이며 교원평가가 이루어 지면 이러한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수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원평가 논의과정에서 ‘교원 전문성 향

상을 위한 동료 교사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남고 부적격 교사 문제는 실종 되어 버렸다. 이제는 부적격 교사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답변 할 차례다.

###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의 방향과 원칙

- ① 교원평가는 학생에 의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한다. 그리고 학생의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 평가에 앞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생활지도 및 학급운영 등이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한다.
- ② 학부모는 학교운영 평가(교감, 교장 평가에 참여한다)
- ③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인사와 승진과는 무관하게 교사의 자기 성찰 및 전문성 향상의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단 교원평가 결과 ‘아동 학대 수준’의 물리적 폭력교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④ 교원평가 문제를 다루는 학교 내에 ‘교원평가위원회’가 항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원평가위원회에는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교육당국은 교원 평가의 시작과 함께 교사들의 진정한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병행해 가야 한다.
- ⑥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필요 하다. 기존에 시범운영을 해온 교원평가 방안은 동료 평가에 의한 다면 평가가 핵심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차원의 평가 방안인바 학생중심평가 방안으로 변화와 조율 필요하다.
- ⑦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는 다른 부적격 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학교 교육력 제고 협의회의에서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사 문제를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부적격교사문제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는 회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유명 무실한 기구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교원평가 논란 과정에서 실종된 부적격교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와 교사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 하고 성의껏 잘가르치는 그런 학교 문화를 기대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소박한 소망이 여러가지 교육현실의 변화와 함께 우리결로 다가올수 있는 날들을 기대 한다.

###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교육관련 단체의 입장

한나라당의 인사연계 교원평가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석단체 모두가 반대했다.

#### 1. 한국 교총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교사 평가 중심의 교원평가 법제화에는 원칙적 찬성(학생중심 평가에는 회의적)
-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정원확보,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병행 요구.

#### 2. 인간 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 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원평가(학부모가 학교운영 평가 참여외에 개별 교사 평가에 참여)
- 부적격교사범위 확대와 부적교 교사 문제 해결 대책 시급

#### 3. 전교조

- 교원평가 법제화반대, 대안으로 학교

자치 평가 제시(교육활동에서의 협력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필요)

#### 4. 좋은 교사

-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 법제화 찬성 : 교원평가에 얹혀진 여러 다른 기대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교원에게 피드백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 교장 공모제 확대, 근평제 개선등 실효성있는 교원평가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후 대책 마련 요구.

### 이후 교원평가 법제화 위한 활동 방향

한나라당의 인사연계(동료교사 평가를 근평에 연계) 교원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단체 모두가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방안 반대가 자칫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의견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방안과는 다른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응법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법안 마련에 함께 노력 해야 할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적격 교사문제이다. 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적격 교사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데는 모두가 공감을 표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하는데 교원단체가 얼마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 학부모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2008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수석부회장 선거

제 16대 회장 · 수석부회장 선거를 새로운 기회로!

어느덧 16대 회장, 수석부회장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비하여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선거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정세는 어둡습니다. 4.15학교자율화 조치로 시작된 공교육의 황폐화, 고교평준화 파괴, 국제중학교 문제, 영어몰입교육, 대학본고사 부활논란, 사립대의 실질적인 고교등급제 실시, 그리고 일제고사 실시 등등 교육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회 나름대로 혹은 연대해서 여러 대응책으로 맞섰지만 강고한 벽을 깨지 못하고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2009년 교육정책 퇴행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교협은 이제 까놓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문제를 대학에 맡겨 버리겠다고 합니다. 곧 3불이 무너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회는 새로운 견인차가 될 회장, 수석부회장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고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뜻과 열정 안에 우리 회원들의 뜻과 요구, 참교육이라는 명제가 뜻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모습을 담아 다시 우리 할 일을 설계해 봅시다.

2006년 선거부터 채택한 직접선거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습니다. 간접선거보다 인력, 시간, 비용 면에서 부담이 훨씬 높음에도 직접선거를 채택한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회원이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때만이 직접선거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들을 알리고 후보들과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권역별 후보자 초청간담회를 독려하고 후보자소견발표 동영상, 공보물제작, 이메일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담아서 공정하고 밝은 선거, 희망을 이야기하는 선거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생활속의 인권

오늘도  
무사히...

인권에 관해 글을 좀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받은 느낌은 참 쓸쓸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말이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매우 낯선 용어라는 느낌 때문이다. 어쩌면 귀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보아온 평범한 풍경 중 몇 가지만 얘기해보고자 한다.

중학교 체육대회 날이었다. 교장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생을 운동장 흙바닥에 앉혔다. 학부모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장은 화를 내고, 아이들은 죄수처럼 주그려 앉아있고 교사는 간수처럼 매를 들고 빨리 정렬 시키고, 감옥과 비슷한 풍경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은 지루하다.

교무실 앞 복도에는 반성문을 쓰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앉아 있다. 여러번 책상이라도 좀 갖다 놓으라 건의해도 소용없다. 추운 겨울에도 복도 맨바닥에 아이들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들여다볼 수 없는 닫힌 공간에서 매 맞는 것 보다는 나을까?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복도와 교실을 다니는 아이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실내화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다녀야 한다. 아

이들 발보다 복도 청소가 더 중요한 이런 법은 누가 제정했는지 모르겠다.

한번은 교장실에 앉아 있는데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와서 하는 말이 요즘 애들 버릇이 없으니 선배들이 와서 좀 가르쳐야겠다고 한다.

그 말에 교장은 어떤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랑의 매를 학교에 가져와서 헌정식을 했다면서 대단히 부러워했다. 처벌하지 못해 교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없이 내던진다.

청소년 인권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묵묵히 교육일선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한다. 드러나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오늘 하루도 맞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귀환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오늘도 무사히...

장세희(정읍지회장)



● 학부모일기

# 우리 모두 일기와 친해보자

꽤 오래전 '부모님 전상서'라는 주말드라마가 40~50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던가. 장성해서 출가한 자녀를 여럿 둔 중년의 아버지가 이웃과 가족 간에 일어나는 작고 큰일에 대한 단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 내려간 일기가 매회 드라마를 마무리 하곤 했다.

이 드라마는 어릴 적 일기를 쓰다가 어른이 되어 중단한 많은 중. 장년층에게 일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드라마에서 노년에 접어 든 아버지가 이미 고인이 된 부모님에게 편지형식으로 쓴 일기는 가족과 이웃 간에 소소히 느끼는 행복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아픈 감정을 일기를 쓰면서 조용히 가라앉히곤 했다.

요즘은 글쓰기의 기본이 일기쓰기라고 하는데 30여년 전 내가 어릴 적에도 일기는 매일매일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학교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세 끼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는 8절지 스케치북에 그림일기를.. 좀 더 커서는 줄 일기



를..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만 빼고는 청소년기까지 꼬박 꼬박 썼었다. 사춘기 시절엔 누가 쓰라 하지 않아도 또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학창시절 이야기가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청소년기 이후 더 이상 쓰지 않았던 일기는 결혼 후 잠시 가계부와 함께 부활하는가 싶더니 지금껏 꾸준히 이어 오지 못하고 있다. 한가해 지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썼던 일기장을 가끔 들여다 볼

때가 있다. 1979년 0월0일..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겠지.. 어떤 일로 심한 꾸지람을 듣고 난 후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났던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난 행상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했다. 용돈을 털어서라도 사드려야 마음이 편하곤 했다)들이 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다.

감회가 새롭다,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랬구나... 가끔은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어떤 때는 푸념을 늘어 놓고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하루 하루 일기(날적이)를 채운 것을 볼 때 내 성장기를 함께한 소중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얼마 전 일간지에 열 여섯부터 여든 두 살인 지금까지 66년간 일기를 써 온 고운상원씨 아버님이 소개되었다. 한 시대를 순탄치 못하게 살아 온 아버지의 26권의 가계부와 일기장에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픈 송아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기도 하고, 낡은 일기장에는 5.18광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에서 숨진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기란 이렇게 아픔을 치유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삭이기도 하는가 보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 버겁거나 세상이 하염없이 야속할 때 기쁨에 겨워 마냥 행복할 때, 일기쓰기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시켜 보자.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시작을 다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모두 일기와 친해보자.

김희영 (양주지회장)

## 민들레책을 소개합니다

그 동안 도서출판 '민들레' 는 종종 우리 신문에 좋은 책들을 광고하여주셨습니다. 지난 10월호(206호)에도 두 권의 책을 광고하여 주심으로써 저희회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한 책들이지만 선정적 인기도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부가 가지고 있는 '민들레'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원에 한하여 20%를 할인하여 드리며 계좌이체 확인 후에 발송하여드리겠습니다. 발송비는 본부가 부담할 것입니다. 책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주문이 늦은 경우에는 금액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고 이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시에 책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www.mindle.org>

문의 010-5165-7585 송환웅 (언론정보출판위원장)

계좌번호 국민은행 008-24-0225-761 송환웅



### 도서출판 민들레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 옛날 옛날에 샘들이가 옛이야기로 들려주는 수학



우리 조상의 슬기가 녹아있는 옛이야기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책.  
왕규식 씀  
정가 9,000원  
회원가 7,200원  
(15부 한정)

#### 솔빛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 좋은 부모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좋은 부모 강박증에서 벗어난 평범한 엄마의 가슴 찡한 성장기이자 아이와 함께한 길 찾기 기록.  
이남수 씀  
정가 10,000원  
회원가 8,000원  
(13부 한정)

#### 일하며 논다, 배운다 노리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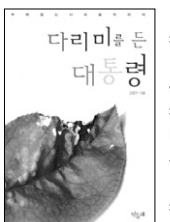
9세부터 42세까지 3명의 단원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즐거운 워크숍과 공연 이야기.  
김종휘 외 4명  
부록 : DVD 한 장  
정가 12,000원  
회원가 9,600원  
(5부 한정)

####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자연계와 인간 그리고 다른 종간에 새겨진 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책.  
조인 엘리자베스 록 씀, 조영주 옮김  
정가 12,000원  
회원가 9,600원  
(5부 한정)

#### 다리미를 든 대통령



김정수 씀  
= 8500원 X 2권  
대안학교 길라잡이(초등)(민들레 편집실 씀)  
= 8000원 X 2권  
바보 만들기  
존 테일러 개토 씀,  
김기협 옮김  
= 7500원 X 2권



# 사진으로 보는 2008년 교육현장 worst 8

**편집자주** | 뒤돌아 보면, 지난 2008년은 참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상반기 초 영어몰입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415학교자율화 조치, 학교를 서열화하는 학교정보공개법 시행, 역사교과서 개악 시도 등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만능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1년을 숨돌릴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2008년 worst 8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일만 떠올려야 하지만 지치지 말고 힘차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2008년 worst 8를 뽑았습니다.

## 1 영어몰입교육, 교육을 무너뜨리다



올해 초 정부는 영어교육을 초·중 1·2학년으로 확대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다시 초·중 3~6학년 영어수업시간을 늘리려는 꿈을 여전히 부리고 있다. 정

부의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실현하기 보다는 필연적으로 영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유아에게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교육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언어교육에 관련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 2 NO! 미친소, 미친교육



지난 6월 대한민국은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성난 촛불이 들불이 되어 달궜다. 몇 달에 걸친 촛불대행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뒤흔들고 하고 검역주권마저도 포기한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비롯되었지만 교육, 의료, 민영화로 포장된 공기업 사유화 등 시장주의로 치닫는 국가정책에 대한 전면적

인 저항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밥줍먹자, 잠줍자자', '우리는 시험보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는 극에 달한 입시경쟁에서 나 좀 살려달라는 절절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 '차율'과 '다양'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학교교육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다.

## 3 4.15학교자율화 조치



지난 4월 15일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1단계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게 하는 자율화,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원기업 살찌우는 자율화, 학교장 마음대로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율화, 교복공동 구매 권장 지침, 촛지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는 지침까지도 폐지하는 자율화로 인해 이 땅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교자율화는 대학 입시 자율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 4 고대 고교등급제 부활논란



소위 서울 중심의 일부대학들이 명문대라는 이름의 대학패권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대학이기주의에 내신 중심선발이라는 2008년 대학입시안이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

2008년 대학입학 시험을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학교현장의 혼란

은 외면한 채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라는 대학 맘대로 식의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는 일부대학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분노케 한다. 이를 위한 수순인지 비록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께서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도 자율화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0년부터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가 본격적으로 부활될지도 모른다.



## 5 국제중, 외국인 학교 설립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중 하나가 국제중 설립. 애시당초 국제중 설립 목적 자체가 불순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국제화 시대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입시에 유리한 특별한 중학교를 세우자니 설득력이 없었고 묘안을 낸 것이 '국제중

학교'라는 요상한 학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6조,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재 헌법재판조사에 국제중 설립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안까지 만들려는 상황이다.

## 6 역사교과서 개악



교과부가 김인정을 한 도서에 대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주문 완료한 것을 번복하기 위한 교과협의회를 역사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또한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

장', 교육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교과용도서 규정 제30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학교장의 판단이 다를 경우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면서 학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학교에서부터 부정되고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7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는 교육목적이나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이를 증명한 듯이 이번 시험으로 인해 소풍이나 백일장 등 그나마 전인적 교육활동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여기에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되면, 학생 간-학교 간 성적 위주의 무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될 것이다.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지필중심으로 획일화된 수업은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성적으로 차별 당할 것이다. 결국 경쟁과 평가 중심의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는 더 깊게 될 것이다.

## 8 위탁급식 허용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작년 6월 CJ푸드시스템에서 납품하는 학교에서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3,000여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10만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 탓가로 학교급식법은 몇 년 간의 지지부진에서 벗어나

식중독 사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위탁급식 학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만료 시 직영전환이 원칙이나 상당수 학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을 허용 하겠다는 법률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나온 책** **스무살 청년이 홀로 떠난 남미 배낭 여행**

나는 인도의 별빛 아래에서  
**남미로 가는 꿈을 꾸었다**

- 글쓴이\_조준석 <김석순 부회장의 둘째 아들>
- 분야\_청소년, 교육, 여행
- 판형\_신국판 256쪽(153X224)
- 가격\_9,500원
- ISBN\_978-89-87222-06-6

도서출판 온누리 전화 062\_234\_1556 / 팩스 062\_234\_1559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의 '추천사' 중에서

준석이 보고 들은 저 아름다운 남미와 인도와 그리고 그밖의 나라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쓴 이 기행문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여행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험한 여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대단한 용기와 자신감이 없이는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나는 준석이 부러웠고, 준석이 같은 젊은이를 아들로 둔 준석의 부모님들이 부러웠다.



## 사람향기 바람따라 ●조명숙(5대 부회장)



학부모회가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20살이 된다고 하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 초등 4학년, 1학년이던 개구쟁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군인으로 자랐다.

나는 90년 가을 즈음에 가입을 하였던 것 같다. 그 당시의 나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전업주부로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 했었다. 이루어 놓은 건 없는데 나이는 자꾸만 들어 내 마음은 초조하고 고달팠다. 그래서 등공예를 배워 집안에 의자나 가구들을 짜서 들여놓기도 하고, 박 바가지에 인두로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댔다.

급기야는 한의대 대입시에서 낙방의 고배를 두 번이나 마시면서 나의 방향은 멈추는가 하였지만 여전히 가슴은 허전하였다. 그러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풍물배움터에서 참교육학부모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나와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참학 부산지부 2대 지부장이셨던 최점순씨였다. 그리하여 나는 학부모회와 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학부모회에서 나의 방향은 일단 방점을 찍었다. 풀 어 놓을 길 없어 고달팠던 나의 사회비판 의식은 학부

모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함께 하니 나는 펄펄 살아 움직였다.

사실이지 학부모회를 들어오기 전의 나는 여느 주부 학부모와 다름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존지를 드리면서 죄를 짓는 듯 불편해 하였고 아이들의 성적에 온통 관심을 두었으며 혼자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부당한 교육현실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학부모회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교육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며 싸웠던 동지애와 끈끈한 정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었고 나에게 의지처가 되어 주었다. 지금도 우리는 동기간 이상의 정을 나누며 살고 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내 친구의 다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소위 '친목계'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요즘 농담처럼 말한다. 친목계 하나 없는 내 인생 책임지라고...

지금 생각하니 지부활동을 열심히 한 10년 세월이 내 인생의 봄날이 아니었던가 싶다. 숲속학교 여름캠프와 교대생들과 함께 열었던 한세학교, 여름 겨울 방학 때의 역사기행을 기획하고 풍물교실을 열면서 나의 관심은 대안교육으로 넘어갔다. 지금의 학교 교육 속에서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할 수 없음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교수들과 대안학교 설립을 염두에 두고 풀무학교, 영산성지학교, 거창고등학교 등을 탐

방을 하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공부하였다.

지금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선택의 폭이 넓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위의 학교정도가 대안학교로 일컬어졌다. 거창고등학교가 입시성적도 괜찮고 인간교육도 시킨다는 명목으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큰 애를 거창고등학교로 보냈다. 대입시라는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거창고등학교를 택했던 게 더 정확할 듯 싶다.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학부모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는 사회비판의식이 높은 것 같다. 큰 아들 표현을 빌리자면 의식화 되었다고 한다. 글을 쓰면서 작은 아들에게 엄마의 학부모 활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넌지시 물었더니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울 뿐이다.

학부모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여러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회원 수 확보와 지부장 뽑는 거였다. 감사하게도 내 뒤를 이은 후임 지부장들의 발군의 노력으로 회원 수는 많이 늘었다. 그런데 지부장 인선은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혹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누군가의 말을 나도 여기서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지금은 다시 신발 끈을 조일 때이다.”

## ● 선배에게 듣는다②

#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실천하는 학부모를 위해

김영만 회장님이 이끌었던 참교육학부모 운동은 민주화 물결과 함께 그동안 굶은 교육에 대한 개혁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투쟁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5년이 지난 94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실천하는 학부모”라는 주제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육자치제도 바로 세우기’ ‘학부모의 의식 강화’의 시기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에서는 창립 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고 향후 학부모회 활동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94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참관사업을 전국사업으로 채택하여 그 해 서울, 부산, 마산, 전주 이리 지역에서 참관활동을 시작하였고, 교육자치제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학부모회가 감당함으로써 교육위원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원들의 교육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학부모의 아픔을 대변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자 했던 학부모회는 또한 94년 ‘불법찬조금 고발장구’를 개설하게 되었고 자체 상담원 교육을 꾸준히 개설한 결과 96년도엔 ‘학부모 상담실’이 개소되는 가슴 뿌듯한 역사가 일어났고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학교 체벌’ ‘돈봉투문제’ ‘사학비리’ 등 학교현장의 생생한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였다. 그러나 활발한 상담실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부모회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각종 토론회에 나가 학교현장의 생생한 사실을 통계적인 수치를 통한 문제점 지적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대안을 내는 진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의 폐해도 심각하게 인식한 학부모회는 93년 1기 모니터 강좌를 시작으로 꾸준히 해마다 강좌를 열어 TV시청 일기장 쓰기 등 미디어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 원년의 해”를 선포하였는데 교육정책의 기초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거꾸로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월반·속진제, 국민학생 국·영·수 학원과외 허용 등 수월성위주의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따라서 학부모회도 바쁘게 대응하였으며 중집위 때 과외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각하게 토론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이때 의미 있었던 일은 학부모회가 주관자가 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공교육의 정상화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하였는데, 사교육비의 계층별 사례발표와 교사들의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 발표로 언론의 집중을 받아 각 중앙지에 공청회 관련 기사가 게재 되는 등 이후 학부모회가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내가 기억나는 활동으로는 학부

모회가 그렇게 부르짖던 학교 내 ‘학부모회 법제화’가 “학교운영위원회”란 이름으로 정착하게 된 것과 초등학교 급식실시를 위한 활발한 활동들이 있다. 그동안 학교장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 봉사자로 전락했던 학부모들을 주체자로 세우기 위한 각종 공청회, 교육, 홍보활동 등을 벌였는데 이를 위한 개인적 활동기역을 더듬자면, 전주시내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시내버스 한 구간을 하루 종일 왕복 승·하차 하면서 열변을 토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때 내 모습은 마치 고속버스 휴게실에 잠시정차한 차에 얼른 올라와 가짜시계를 팔고 촌충이 사라지던(?) 그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실시를 위한 연대활동에선 각종토론회에 나가 당시 무학여고 학생들을 한강에 빠져 죽게 만든 성수대교 건설 부실을 사례로 들면서 그 한건의 다리 복구비가 전국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와 같은 점을 부각시키며 재정이 없어 못한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던 일 등, 20년이 다되어간 지금 내 청춘을 불살랐던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잠시 흘러갔다.

김원자(5대 회장)

## 안승문의 스웨덴 - 핀란드 교육이야기 ⑦



안 승 문

스웨덴 읍살라대학  
객원연구원  
edu2010@hanmail.net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중학생 이상 수준의 학생들은 물론 나이가 지긋한 40~50대의 어른들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곧잘 한다. 스웨덴은 유럽과 언어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서양 언어와는 어족도 문장 구조도 단어의 어원이나 스펠링도 전혀 닮은 데가 없는 핀란드의 영어교육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요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모든 외국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책임진다. 영어든 제2외국어든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만 충실하면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민자 학생이나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보충 교육을 시키더라도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가르쳐서 돈을 버는 사설 학원은 찾아볼 수 없으며, 따로 학원비를 들여서 별도의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풍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적인 영어교육의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으로 영어를 우상화하거나 숭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교육자, 메스컴이 영어만을 강조하지 않으며, '영어마을' 같은 데 엄청난 예산을 퍼붓지 않고, 영어가 경쟁력이라고 호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교육에 차분히 집중하게 된다.

둘째, 영어교육의 제1 목표는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지필평가나 토익 토플의 높은 점수가 아니라,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며 문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25명으로 효과적인 영어

## 스웨덴과 핀란드 영어교육 성공의 숨은 비결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그 속에서도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한다. 특히, 학습량이나 과제가 많지 않고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부진한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다.

넷째, 학교별로 특정 교과서를 정해서 그것만 가르치지 않는다. 올림픽 관련 신문 기사든 상품 판촉용 리플렛이나 음식점의 메뉴 안내판이든 미국 대선 후보의 연설문이든, 교사들은 흥미를 끄는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7학년까지는 점수나 등급을 내지 않으며, 8학년 부터는 4단계로 절대 평가를 할 뿐 총점이나 석차의 개념 자체가 없다. 즉, '매우 잘함(MVG)', '잘함(VG)', '통과(G)', '실패(IG) 중 '통과' 등급 이상을 받도록 격려해 준다. 고입과 대입을 위해서는 '통과' 이상을 받으면 된다.

여섯째, 정해진 교과서를 소화하느라 과중한 학습 부담이나 진도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확실적인 교과서나 학교별 일제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선다형 문제는 거의 없으며, 에세이나 토론 모습, 발표 등으로 평가한다. 시험은 교육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일곱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조화로운 발달을 중시한다. 저학년일 때는 듣기 위주이지만 고학년일수록 동화읽기, 에세이 쓰기, 발표하기 등을 요구한다. 교사들은 정기적인 지필 평가가 아니라 수업 도중의 토론능력, 발표능력, 에세이 쓰기 과제 등 과정 평가를 중시한다.

여덟째,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스웨덴인인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한다.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원어인 수준의 유창함보다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를 다져주는 체계화 된 교사 교육으로 선순환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영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 프로그램은 원어 그대로 방영하며 스웨덴어나 핀란드어 자막만을 화면 아래에 깔아준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영어로 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영어는 물론 자국어 읽기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성공적인 영어 교육은 한두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단기간에 달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창의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총점 석차로 줄 세우기가 아닌 올바른 평가 제도, 교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풍토, 20~25명의 작은 학급 규모, 유능한 교사를 기르는 교사교육 제도, 창의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 TV 방송의 적절한 역할 등이 어우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도 한두 가지 처방으로 단기에 성과를 보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못지 않게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08/09년 가을 학기에, 스웨덴 읍살라 크반야르데 학교(Kvarngardes skolan)의 8~9학년 한 학급 영어 교사인 다이애나(Diana Strannard)는 지난 9월에 학생들에게 일종의 학기 프로젝트 과제를 주었다. 교사가 선정해 준 영어 소설책(To Kill a Mockingbird, Harper Lee 지음)을 읽고 2009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학생들에게는 책 한 권씩과 함께,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읽을지, 어떤 단어들을 익힐지 등이 제시된 '장별 읽기 지침(Guide)'이 주어졌다.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문학 포트폴리오(Literary Portfolio)' 과제를 주는데, 거기에는 내용 요약에서부터, 주요 내용 인용, 지은이에 대한 것, 비교, 비유, 주제, 등장 인물의 성격 등 13가지의 과제들이 적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3가지 지정 과제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4개를 선택해서 총 7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1월 9일까지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책을 읽고, 겨울 방학이 끝나면 이 책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토론을 한다.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담은 과제를 수행한 뒤 1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크반야르데 학교에서와 같은 이런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어 공부나 읽기, 작문, 토론 능력을 길러주게 됨은 물론,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 나아가 비평가적인 관점까지도 가지게 하는 수업으로 스웨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 성남지회

## 어린이 체험 학습단

##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현재를 위해

어린이 체험 학습단은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엄마와 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1·2분기 1·2학년 12명의 아이와 엄마가 참가 하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2시부터 2~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아이만 체험하는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엄마와 아이가 함께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공유의 폭을 넓혀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의 역할을 엄마와 아이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어린이 체험학습단의 모태는 회원들의 “동화 읽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학기 중 동화책 공부를 하던 회원들이 방학 중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고민하며 함께하다가 그 다음해 “삶을 가꾸는 논술”을 공부하던 회원들에 의해 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만나는 “어린이 학교”로 변신하였습니다.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이 후 1년 단위의 어린이 체험학습단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3·4학년의 숲 체험, 5·6학년의 “역사 체험”, 중학생의 “봉사 동아리”가 꾸려져 성남지회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남지회의 회원 확보와 유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나 풍습, 생태 나들이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학기 초에 기획, 1년을 함께 합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거의 마무리 하면

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프로그램들이 한 학기나 1년 단위로 연계성을 가졌으면 하는 점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잘 예정이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가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현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깍두기만들기

나는 체험학습에서 깍두기를 만들었다. 만드는 점도 확실히 알아내고 왔다. 무, 고춧가루, 새우젓을 섞으면 깍두기가 완성!

나는 좋았다. 뭐가 좋았냐면 깍두기를 만들어서 좋았고 만드는 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또 깍두기 만드는 것을 알면 나중에 엄마가 힘들 때 깍두기 만드는 것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내가 내 사촌동생들 4명을 가르치면 내 동생들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 내 동생들이 배워서 내 동생들의 자식들한테 또 알려주면 그 자식들이 또 자식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깍두기 만드는 법을 서로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체험 학습을 하면 많이 배울 수 있다. 또 내 사촌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체험학습이 좋다.

손지윤(당초초 2년)

## 체험학습(판소리)

처음으로 체험학습에 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누가 오고, 선생님은 누구인지 가슴이 매우 두근거린다. 선생님이 오시고 판소리에 대해 알려주셨다.

판소리는 5가지 소리가 있다.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홍보가’ 이

다. 판소리는 ‘창’, ‘아니리’, ‘발림’ 으로 되어 있다. 오늘은 홍보가와 추임세 6개를 친구들과 나누어 배웠다. 추임세에는 “잘한다”, “얼씨구”, “좋다”, “음...”, “그렇지”, “암...”가 있었다.

선생님께서 산토끼 노래를 판소리로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하나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충강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노래는 우리가 아는 산토끼와 같지만, 창으로 부르니 정말 재미있었다.

홍보가 박을 탈때 나는 소리도 무척 재미있었다. 휘모리 장단으로 이렇게 불렀다.

“실글실근 실근실근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실근실근실근실근 실근실근실근실근 실근실근 시리령 실근. 실근실근실근실근 실근실근실근실근 실근실근 측삭 툭탁!”

여기서 홍보는 흥부를 말하는 것이다. 판소리에선 흥부가 아니라 홍보라 부른다.

안소영

2008년  
올해 진행된 프로그램4월 6일 일요일 서울 능동에 있는 안전  
체험관 견학

가상체험을 통해 재난, 재해 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의식을 생활화한다.

## 5월 17일 야생화 심기

야생화의 종류도 알아보고 야생화를 직접 심어 집에 가져가서 관찰을 통해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본다. 아이들이 사는 동네 공원에서 체험을 한 후 뒷산으로 올라가 봄에 산에서 만나는 들꽃을 관찰했습니다.

## 6월 21일 캐니 빌리지 견학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서 자원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캐니 빌리지를 견학한다.

엄마들의 차를 나누어 타고 강통을 모아 가서 예쁜 저금통 선물도 받고 캐니마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도 직접 사보았습니다. 캔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영상과 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아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 7월 19일 천연 염색천과 베개와의 만남

엄마와 함께 규방공예를 배우면서 내 베개를 만들어 본다.

손바느질로 내 베개를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러 가면서 한뼘 한뼘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며 엄마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9월 20일 우리 소리 배우기

우리 전통의 소리, 판소리를 배워 본다. 판소리 선생님을 모시고 홍보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여러 가지 용어도 배웠습니다. 홍보가 박을 타는 장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 10월 18일 수수팔떡 만들기

아이가 태어나면 10살까지 수수팔떡을 해먹는 우리의 액막이전통을 이해하고 직접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한다. 요즘은 빵과 더 친한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음식 떡을 가까이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엄마와 함께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었다. 퓨전으로 수수경단에 카스테라를 묻혀 친근감을 더했습니다.

## 11월 29일 동물과 식물의 겨울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산에서 동물과 식물들은 겨울 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12월 20일 겨울 하늘 별자리 관찰(예정)

# 정보사회의 청소년 윤리교육

## 정보사회의 어두운 면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 현상이 목도된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이버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기존에 존재했지만 미약했던 현상이 크게 돌출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진전은 결국 어떤 모습을 한 사회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강조한 바, 이상적인 정보사회는 시민의 정보 주권이 중시되고, 정보정책의 입안과 실현과정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며, 모든 수준의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욕구가 능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참여 민주적인 시민사회이다. 즉 정보화로 인해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확대되고 그 혜택을 시민들이 보는 사회이다. 하지만 이상의 정보사회의 민주적 장점도 나타나지만 그 반면에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정보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한국은 인터넷기술이 급성장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도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폭력, 도박 등 범죄가 2002년 3,155건에서

2006년 7,881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이버 관련 법규를 강화해서 이를 억제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규제를 강화하면 범죄가 사라질까? 과연 우리는 그동안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라는 의문에 휩싸이게 된다. 그 대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어쩌면 사이버 범죄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했고 어쩌면 모른 채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 가정에서의 정보윤리 교육 필요성 더욱 커져

영화나 동영상,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이 학교나 공교육에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아직 한국의 교육현실이 인간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미처 정보사회의 규범과 윤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초·중등학교 입학식에서부터 정보윤리 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정규시간에 정보윤리에 대해 수업을 받고 일찍부터 정보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면역주사를 맞고 있다. 그런 조건에서라면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공교육 차원에서의 정보윤리 교육은 시급하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사실 가정에서의 교육, 즉 학부모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가정은 삶의 출발이고, 사회의 최소단위 생활의 장으로써 개개인 행동의 기초를 확립하여 생활의 근원을 이루는 교육적 환경이다. 정보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정보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동기를 이해하고 부모의 모범과 대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과 기술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윤리 교육의 실시이다. 모르면서 무조건 청소년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연후에 대화를 한다면 대화와 해법이 나오게 마련이다. 학부모가 인터넷 정보윤리를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이다. 그리고 잘 교육받지도 못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규제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것도 가혹한 처사이다. 아직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범과 윤리, 시민적인 가치가 남아있다면 먼저 교육과 규범화를 통한 올바른 청소년 정보윤리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과 함께 학부모 정보윤리교육도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늦었지만 시민단체나 관계 기관에서부터 이런 노력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 학부모상담실 12기 상담원 교육 후기

# 함께 행복해지기

“엄마, 오늘은 뭐 배웠어요?”

다섯 번째 강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받고 온 날, 5학년인 셋째 새은이에게 요즘 하는 게임이 뭔지,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며 그날 배운 내용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동안 컴퓨터 하는 시간만을 문제 삼았지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는 그 날 강의가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인터넷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헤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새은이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얘기를 재미있게 듣더니 자기는 게임안하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께 안심했었다. 그러고는 내가 공부하고 온 날은 꼭 물어본다. “엄마, 오늘은 뭐 배웠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배운 내용을 때론 장황하게 때론 간단하게 아이에게 전해주게 되었다. 그렇게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즐거웠고 풍부해졌다. 학부모 상담원교육은 이렇게 아이와 나와의 대화거리로서의 첫 역할을 알뜰히 해주었다.

처음 메일을 통해 학부모상담원교육에 대한 홍보를 접했을 때 가장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는 “학생인권”이었다. 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보니 아이는 중학교 때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해야 했고 사사건건 별점이 걸렸었고 그 별점을 없애기 위해 운동장을 오리걸음

는 희망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열 번의 다양한 강의와 강사님들의 열정도 큰 자극을 주었지만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게는 더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 자녀들이 처한 인권상황,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한계들, 무한 경쟁체제로 치달아가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참 든든한 일이었고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학부모상담원활동도 나처럼 외롭게 고민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더 잘 도와주기위해 공부해야할 것들이 참 많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고유경(12기 상담원교육수료자)

Q&A  
상담실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전학가라고...

**Q [사례 1]**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다. 지난 수요일쯤 아이가 자꾸 체육시간에 수업을 빼먹는다고 학교에서 전화연락이 왔다.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아이, 학부모인 나, 이렇게 넷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육선생님이 들어왔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안 나가고 계속 교실과 주변을 뱅뱅 돌며 안 들어온다는 거였다.

사정을 아이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에 생활지도부 교사인 체육선생님이 두발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너는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내 수업시간에 들어오지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창 예민한 나이이니 만큼 두발문제를 너그럽게 보아달라며 사정하려 했는데 이 체육교사가 4월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다. 학교선배한테 맞고 있는 걸 말려주었더니 아이가 자기에겐 욕을 했다는 것이다. “에이 XX”이라고... 우리 아이가 선배한테 말한 건데 체육선생님이 오해 한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나, 앞으로 너 못 가르치니 알아서 해라. 가정교육이 저 모양이니 애가 저러지”하면서 나가는 거였다. 같이 있던 교감선생님은 한 술 더 떠 “너 전학해라. 머리 맘대로 하는 학교에 보내주마”라고 얘기 했다.

머리문제는 아이를 설득하려 무지 애를 썼다. 부모인 우리가 설득해도 안 되어서 유도학원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거의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다. 아이는 자르고 싶지 않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한다. 교감선생님에게 전학을 얘기했더니 정상적 학교는 안 된다고 문제아가 있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얘기한다. 아이

는 전학가고 싶어 한다. 답답해서 담임선생님과 오늘 네 시경에 상담을 요청해 놓았다.

**[사례 2]** 고1 자녀가 담배 피우다 세 번 적발되자 퇴학 대신 전학가라고 한다.

공립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부모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세 번 적발되었다.

처음에 걸렸을 때는 교내봉사,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금연교육을 받는 특수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았고 이번엔 세 번째 걸렸더니 퇴학시키기 전에 전학가라고 한다.

이미 세 네 명이 이렇게 조치된 전례가 있어서 봐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면 퇴학 조치 한다는 데 담배를 피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남편과 나는 설마 퇴학을 시키겠냐며 버티고 있다. 다른 교칙 위반은 없다. 너무 억울하다.

**A [사례 1]** 요즘에는 두발문제로 전학까지 가게 할 정도로 강하게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이 없는데 이런 학교가 아직도 있다니 답답합니다. 물론 체육교사에 아이가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를 잘 설득해서 체육수업시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 다른 조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담임교사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오늘 상담할 때, 한참 예민한 중학교 2학년의 아이인지라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되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함께... 아이가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학교에서 두발을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런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 가서 부딪힐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사례 2]** 흡연이 교칙 위반이기는 하나 금품갈취, 폭행 등과 같이 타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퇴학처분 운운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상황이고 또한, 금연은 징계나 처벌의 외적인 통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선도나 교육으로 흡연자의 마음을 바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흡연교육 내지는 징계조치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학칙에 흡연과 관련하여 퇴학처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퇴학 대신 전학을 가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칙의 ‘생활규정’ 내지는 ‘선도규정’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학교 측을 찾아가서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학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진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흡연사실로 퇴학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밍보인 학생을 이 기회에 내보냈으며 퇴학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올해 들어 저희 상담실에 부쩍 전학문제로 인한 상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학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만 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및대책에관한 법률). 그것도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가해학생에게만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처럼 학칙 위반 때문에 전학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를 보면 징계의 종류를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중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에서는 위의 두 사례에서처럼 두발문제나 흡연사실 등의 일로 전학 보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전학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친구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이인지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몹시 두려울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아이의 지도를 떠넘기기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고 교육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이야말로 선도와 교육이 필요한 건데 이런 아이들은 전학 보내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교육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본분과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사설 2008년을 보내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열망하는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 2008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난해 대선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여년 동안의 그나마 성과라고 자부했던 민주화라는 것이 신기루였나 싶을 정도로 일반 상식조차 바뀌치기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주 하며 우리는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부세가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절한 외침이 정부의 방종 장악이 그렇고 영어 몰입교육을 시작으로 몰입 영어 광풍과 국제중학교, 일제고사와 학교 정보 공개, 3불 폐지논란과 함께 고교 등급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공교육포기 415학교 자율화가 학교와 학생들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수정압력과 학교별 역사교과서 교체 압력, 그 옛날이 반

공 교육을 방불케 하는 고등학생대상 우익 인사들의 강연대목에 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광분을 하던 사람들이 자국에서는 일본 우익인사들과 똑같은 망발과 행동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대학 등록금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까지 신용 불량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다녀서 미안해'라는 학생들의 눈물이 학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대학 다니는게 이재는 불효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해 2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이 자살해도 기사꺼리조차 되고 있지 못한 나라, 그래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학력 경쟁, 학교 서열화, 점수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육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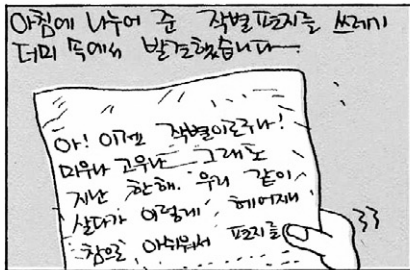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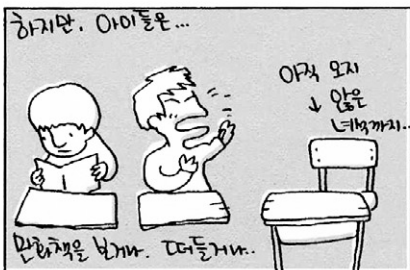
그러나 좌절하거나 주저 하지 않습

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더 엄혹한 시절도 견디어 내며 한발 한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의 촛불이 우리에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더 큰 발전과 더 큰 걸음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 보고 성찰하는 기회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못 견디게 아픈 마음을 '미친교육'을 날려 버리는 힘으로 모아 나갑시다!

2008년이 뼈 아픈 자기 성찰과 반성의 한해, 아프고 화나고 분노한 한해였다면 2008년의 끝머리에서는 다시 힘을 내어 2009년을 굳은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우리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고군분토한 모든 분들과 회원 여러분! 2008년 한해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희망을 이야기 하는 2009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종업식 편지



어느 아이의 가방 속에서 편지를 꺼내어 읽던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 해 동안 고맙다고...

본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종업식 편지(p129)'를 실은 것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뉘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치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의 허락하에 1년 동안 본지에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  
지은이 \_ 이상수  
출판사 \_ 나라말  
가격 \_ 9,000원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윤숙자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전은자 장은숙 박은희  
주소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동 5반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숙자	수석부회장 박이선	부회장 장은숙
정순임	감사 김미옥 임명희 서경자	사무처장 이희정
상담실장	정책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김임정 심정숙 박은희	
서울지부	02)393-8900	지부장 박범이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박범이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노현경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최주영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10-9024-6639	지회장 유진경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2-8720	지회장 김희영
	용인지회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최주영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문향자
	수원지회 031)254-2004	지회장 박준영
	김포(준)	위원장 노계향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11-9797-363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6-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오승주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16)98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회 010-7566-0798	지회장 김승남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김영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1-537-0983	지부장 정복순
	안동지회 054)853-5902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회 054)972-8334	지회장
	구미지회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준) 010-7580-8796	위원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한중권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황은득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이 현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사천지회 019-507-1459	지회장 장승아
	김해지회 055)321-8929	지회장 서현화
	거창지회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회 016-478-1035	지회장 박재호

자문위원회 ● 이규원(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지형(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백상빈(강릉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물 심리 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강원대학교 총장)

# 도시개발 대표그룹



꿈을 세계로 펼쳐갑니다

가치를 미래로 키워갑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 -  
꿈의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도시개발 대표그룹

**Dream Space Developer - DSD**



**Dream  
Space  
Developer**

DSD삼호·DSD부림·한독건설·신삼호·삼호건설·호담·소리자비